

# 일본 경제 동향 (2014. 11월)

## 추가 금융완화와 소비세 재인상 연기

< 목 차 >

<b>I. 일본 경제 지표</b> .....	<b>1</b>
<b>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b> .....	<b>2</b>
1.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	2
2. 계속되는 무역적자 행진 .....	7
3. 엔저 가속, 고주가 .....	10
4.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반전 .....	12
<b>III. 일본의 주요 정책</b> .....	<b>14</b>
1. 일본의 추가 금융완화와 소비세 재인상 연기 .....	14
<b>IV. 한일 경제관계 분석</b> .....	<b>18</b>
1. 10월 대일수입 감소로 대일 무역적자 축소 .....	18
2. 3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큰 폭 증가 .....	20
3. 2개월 연속 방한 일본인 수 감소, 방일 한국인 수는 증가 .....	22
<b>V. 참고 자료</b> .....	<b>23</b>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	23
2. 일본의 주요 경제일정 .....	25

#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2	2013	2013	2014			2014			
			4/4	1/4	2/4	3/4	8월	9월	10월	
GDP증가율(연율,%)	1.5	1.5	-0.5	6.7	△7.3	△1.6(p)	-			
경기동향지수(2010=100)	-	-	111.5	-	-	-	108.3	109.8	-	
광공업생산증가율(전기비,%)	0.6	△0.8	1.9	2.9	△3.8	△1.9	-1.9	2.9	-	
소비자물가 상승율(%)	△0.1	전기비	0.4	0.3	0.2	2.3	0.3	0.0	0.0	-
		전년동기비	0.4	1.1	1.3	3.3	3.2	3.1	3.0	-
실업율(%)	4.3	4.0	3.9	3.6	3.6	3.6	3.5	3.6	-	
수출(조엔)	63.7	69.8	18.1	17.5	17.6	18.3	5.8	6.4	6.7	
수입(조엔)	70.7	81.3	21.8	22.4	20.2	21.2	6.8	7.3	7.4	
무역수지(조엔)	△8.4	△11.5	△3.7	△5.0	△2.6	△2.9	△1.0	△0.9	△0.7	
경상수지(조엔)	4.8	3.3	△1.4	△0.9	0.3	-	0.3	1.0	-	
해외직접투자(조엔)	9.8	13.2	3.1	2.6	2.0	-	0.6	0.7	-	
환율	달러	80.1	97.7	100.5	102.8	102.1	104.0	103.0	107.1	108.1
	원화(100엔)	1,413	1,123	1035.7	1,039	1,008.2	987.3	996	962	983
금리(10년물,%)	0.78	0.72	0.64	0.63	0.60	0.53	0.51	0.54	0.49	
주가(닛케이)	9,612	13,651	15,388	14,958	14,655	15,562	15,359	15,948	15,394	

주: (p)는 1차 속보치,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경기판단) 완만한 회복세

- '14.9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09.8으로 전월비 1.5p 상승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는 제자리 걸음

- '14.9월 전월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0.7조엔 무역적자로 28개월 연속 적자

- '14.10월 수출은 6.7조엔 수입은 7.4조엔

(환율) 엔화환율은 엔저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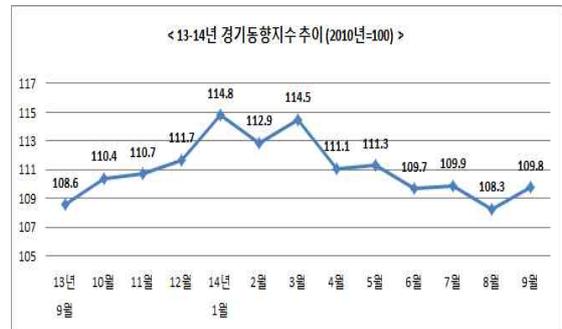
- '14.10월 엔화의 대미달러환율 평균치는 108.1엔으로 전월대비 0.9% 엔저  
\* '14.10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83원으로 전월대비 2.2% 엔고·원저

## Ⅱ.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 1.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 □ (총 합)

- ‘14.8월에 하향수정된 내각부의 경기기조판단이 9월에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
- ‘14.9월 일치지수로 본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09.8로 전월보다 1.5p 상승
- 생산의 호조와 고용 안정이 주된 요인



자료 : 내각부

#### □ (전 망)

- ‘14.2분기의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3분기에도 GDP가 예상외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에 따라 일본정부의 2014년도 GDP성장률 전망치 1.2%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다만, 완전실업율이 3.6%로 완전고용에 근접한 상태에 있는데다, 엔저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수익의 개선과 함께 광공업생산도 회복되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강함

#### □ (시사점)

- 3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함에 따라, 아베 총리는 2015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10%로의 재인상을 연기하고 이에 대한 신임을 묻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
- 예상을 넘어선 일본경제의 담보상태는 기업의 수익증가가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소비가 확대되는 아베노믹스의 선순환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않은 증거라고 볼 수 있음

- 더욱이 일본경제의 실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율이 0%대 중반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성장전략을 통해 성장력을 키우지 않는 한, 앞으로도 작은 여건변화로도 마이너스성장에 빠질 가능성은 상존

## □ (GDP) 2014. 3분기 성장률, 2분기에 이어 마이너스

- 일본 내각부가 11월17일 발표한 2014년 3분기 GDP성장률은(1차 속보치) 2분기의 마이너스성장에 이어 전기비 -0.4%, 연율 환산으로는 -1.6%
-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폭이 커서 3분기에는 플러스성장을 되찾을 것이라는 V자 성장에 관한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내수, 외수 모두 이 같은 예상을 빗나감
  - 전기비 1%정도의 성장률이 예상되었던 개인소비는 0.4% 증가에 그침
    - 소비세 인상, 엔저에 의한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3분기에 소비자물가가 4.0% 상승함에 따라, 실질임금이 2.5%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
  -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설비투자는 0.2% 감소, 2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주택투자도 전기비 6.7% 감소
  - 실질수출은 전기비 1.3% 증가했으나 투자와 재고 등의 감소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
    - 기업들이 해외생산거점으로부터 해외시장에 제품을 직접 공급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이 크게 늘지 않음
    - 수출에서 수입을 뺀 외수의 성장기여도는 0.1%p
  - 여기에 기업들의 생산조정에 따른 재고감축도 마이너스 성장에 일조
- 이에 따라, 일본정부의 2014년도 GDP성장률 전망치 1.2%를 달성하려면 4분기와 2015년 1분기에 각각 전기비 3.1%의 성장이 필요한데, 이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금년 가을 이후 소비세 인상의 반작용에 의한 감소는 조금씩 줄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본경제가 이대로 본격적인 후퇴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은 적음
  - 미즈호 종합연구소는 4분기 GDP성장률을 연율 4%로 예측, 겨울보너스 증가가 소비를 자극하고 원유가 하락으로 부담이 줄게 되는 중소기업에서도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2	2013	2013		2014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전기비			0.6	-0.4	1.6	-1.9	-0.4	-
(전기비연율)	1.5	1.5	(2.4)	(-1.6)	(6.7)	(-7.3)	-1.6	-
(전년동기비)			(2.3)	(2.5)	(2.9)	(-0.2)	-1.2	-

자료: 일본 내각부

□ (광공업생산) 2014.9월, 증가로 반전

○ '14.9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비 2.9% 증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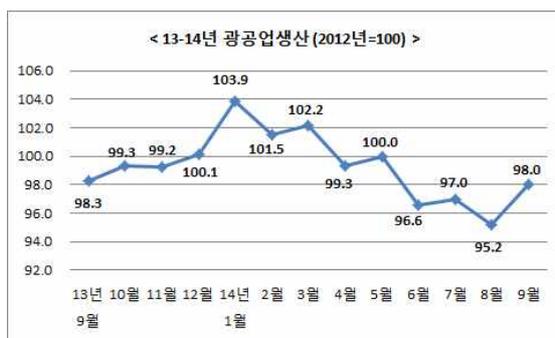
- 금년 4월 소비세 인상 후 대폭 증가한 재고가 5개월 만에 감소하고, 출하도 4.3%로 생산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인데 따른 것임

-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생산의 기초를 약세추이에서 일진일퇴로 상향수정

○ 업종별로는 15개 업종 중 13개 업종이 증가

- 전자부품·디바이스와 수송기계의 생산이 각각 5.8% 및 4.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화학공업은 0.1% 감소

○ 당분간은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작용 영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진일퇴를 거듭할 전망



자료 : 경제산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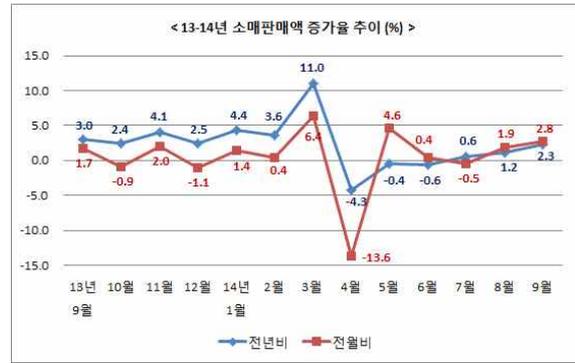
- 제조공업생산 예측조사에 의하면, 10월에는 전월비 0.1% 감소, 11월은 1.0% 증가 예상

□ (소 비) 완만한 회복세 유지

○ '14.9월 소비는 소매업 판매액면에서는 전월비로는 2.8% 증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

- 소비의 수요측 통계인 실질소비지출도 전월비 1.5% 증가

- 수요측 통계와 공급측 통계(광공업출하지수 등)를 합성한 소비종합지수는 전월비 0.5% 증가



자료 : 경제산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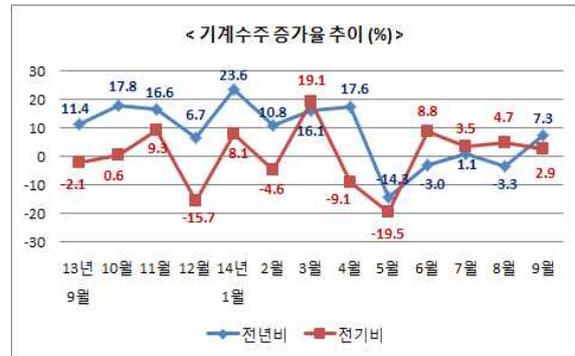
- 기온저하에 따른 의류의 소비가 호조를 보인 외에, 자동차와 연료의 판매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

- 2015년 4월로 예정된 경자동차에 대한 세율 인상을 앞둔 신차의 가수요와 고용·소득 환경의 개선으로 앞으로도 완만한 회복이 예상

- 다만 소비자마인드의 저하 기미는 가시지 않고 있음

### □ (설비투자) 기업수익의 호조로 회복

- '14.9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은 전월비 2.9% 증가, 4개월 연속 증가



자료 : 경제산업성

- 설비과잉감이 일부 제조업에서 남아있기는 하나 기업들의 설비갱신을 위한 투자의욕이 살아나고 있는 점이 주된 요인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11% 증가한 가운데, 원자력 발전설비, 반도체제조장치, 원동기 등의 발주가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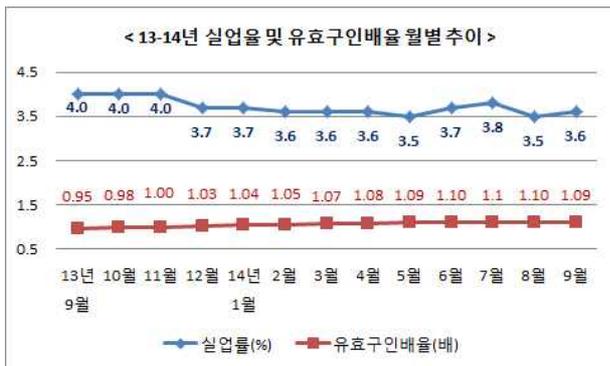
- 비제조업은 1.6% 증가한 가운데, 통신정보서비스업과 도소매업으로부터의 컴퓨터 발주가 증가

- 일본은행 단칸(2014년 9월)에 의하면 2014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전 산업에서 3년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제조업은 4년 연속 증가, 비제조업에서는 3년 연속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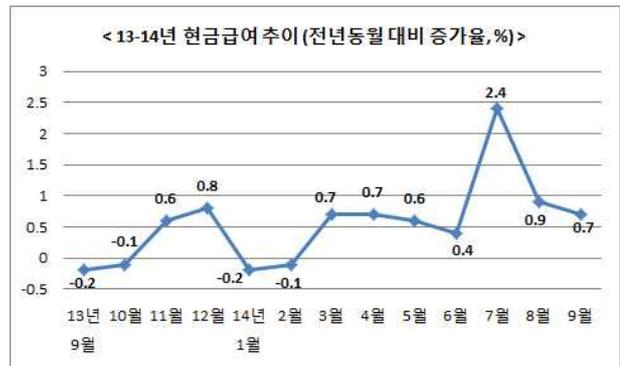
- 2분기와 3분기에 연속 설비투자가 감소했으나, 최근 소비세 인상의 반작용 영향이 줄어들면서 생산과 기업수익이 회복되고 있고 여기에 엔저도 가세함에 따라 앞으로 설비투자는 회복될 전망

□ (고 용) 전반적으로 안정세 유지

- ‘14년 9월 완전실업율은 3.6%로 8월보다 0.1%p 상승
  - 완전실업자 수는 2개월 만에 증가
  - 취업자 수는 6,403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3만 명 증가한 가운데, 여성취업자는 2,757만 명으로 과거 최고 수준
- 9월의 유효구인배율은 1.09배로 8월보다 0.1%p 저하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일손부족 현상이 지속
  - 일본은행 단칸(9월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의 고용부족감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고용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임금은 현금급여 총액이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했지만, 근로자세대의 실질수입은 소비세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전년동월비 6% 감소



자료 : 후생노동성



자료 : 후생노동성

□ (소비자물가) 2개월 연속 제자리걸음

- ‘14.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은 전월 대비 0.0%로 전월과 같은 수준
  - 전년 동월 대비로는 3.0% 상승, 16개월 연속 상승
  - 원유가 하락이 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 상승율을 8월보다 0.1%p 떨어트린 주된 요인

-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큰 품목으로는 생선식품을 제외한 식료 4.2%, TV 9.9%, 숙박료 8.4% 등임

○ 소비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효과를 2.0%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

○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현재 정도의 상승폭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물가상승률도 전체로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음



자료 : 총무성

- 엔저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한편, 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물가하락 압력이 구체화될 전망

## 2. 계속되는 무역적자 행진

□ (총 합) '14.10월에도 0.7조 엔의 무역적자로 28개월 연속 적자

- '14.10월에도 무역수지는 0.7조 엔의 적자로 전월비 적자폭은 줄었지만 28개월 연속 적자 행진
- 對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6,703억 엔에서 5,868억 엔으로 크게 축소된 한편, 對미국 무역흑자는 전월의 5,409억 엔에서 6,145억 엔으로 확대

< 2014년 10월 일본의 수출입 (단위: 조엔, %) >

	2014.9월			2014.10월			2014.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 출	6.4	6.9	10.3	6.7	9.6	4.7	60,0	3.9
수 입	7.3	6.2	7.4	7.4	2.7	1.4	71,2	6.9
무역수지	-0.9	1.6	0.8	-0.7	-35.5	-22.2	-12,2	37.6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출) 엔저효과로 수출물량 2년 반 만의 최고 수준

- '14.10월 수출은 9월보다 4.7% 증가한 6.7조 엔
- 수출 물량도 전월보다 2.2% 증가, 약 2년 반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

- 이는 엔저의 가속화로 달러표시 기업들이 수출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한 결과로서 조금씩 엔저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
  - 10월의 일본은행 수출물가지수는(계약통화기준, 2010년 100)전년동월비 1.7% 하락한 97.5로 2009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품목별로는 전기·전자기기가 3.9% 하락한 외에 금속·동제품도 3.3% 하락
- 수출액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원동기 순이며, 전월과 비교하여 과학광학기기 대신에 원동기가 포함
  - 5대 수출품목 중 자동차와 철강을 제외하고는 3개 품목이 전월보다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원동기의 수출증가율이 11.7%로 가장 높으며, 이어 자동차부품(7.2%), 반도체 등 전자부품(2.3%) 순임
- 주요 수출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은 모두 증가한 가운데, 수출 순위 6위인 대만으로의 수출이 13.3%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이어 미국, 중국, ASEAN, EU, 한국 순으로 대만의 뒤를 잇고 있음

< 2014년 10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단위: 억 엔, %) >

순위	품목	2014.9월			2014.10월			2014.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자동차	10,238	7.0	32.7	10,151	6.2	-0.8	89,537	4.7
2	철강	3,480	14.0	9.1	3,463	11.8	-0.5	32,654	3.5
3	반도체 등 전자부품	3,330	7.9	2.1	3,408	8.7	2.3	30,065	1.4
4	자동차부품	3,011	1.5	13.9	3,228	3.0	7.2	28,693	-0.3
5	원동기	2,046	-1.5	8.7	2,285	-0.3	11.7	20,7	-1.0

자료 : 일본 재무성

< 2014년 10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단위: 억 엔, %) >

순위	국가	2014.9월			2014.10월			2014.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미국	11,582	4.4	13.3	12,683	8.9	9.5	110,421	3.5
2	중국	11,544	8.8	3.4	12,296	7.2	6.5	109,652	6.8
3	ASEAN	9,634	6.9	8.2	10,238	10.8	6.3	90,973	0.9
4	EU	6,497	0.7	8.9	6,817	5.4	4.9	62,757	9.6
5	한국	4,712	3.2	9.4	4,779	3.0	1.4	44,750	-3.1
6	대만	3,384	7.5	-0.3	3,834	16.2	13.3	34,881	4.2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엔저에 따른 수입액 증가

- '14.10월의 수입은 9월보다 1.4% 증가한 7.4조 엔
  - 수입 물량은 전월 대비 2.1% 감소
- 수입물량이 감소된 데는 엔저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의 영향이 큼
  - 다만 원유의 수입물량은 전력수요 감소로 전월비 8.8% 감소

< 2014년 10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단위: 억 엔, %) >

순위	품목	2014.9월			2014.10월			2014.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원유	11,325	-2.2	-0.7	10,784	-10.8	-4.8	117,925	1.8
2	액화천연가스	6,158	21.0	3.7	6,198	6.1	0.6	64,038	10.6
3	통신기	3,800	11.6	209.7	3,475	29.6	-8.6	22,037	3.3
4	의류·동부속품	3,714	2.4	21.3	3,375	-2.8	-9.1	27,279	-0.3
5	반도체 등 전자부품	2,579	6.9	14.3	2,539	8.5	-1.6	23,771	17.6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입액 기준으로 5대 수입 품목은 원유, 액화천연가스, 통신기, 의류 및 동 부속품,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순으로 전월에 비하여 변동이 없는 가운데, 액화천연가스 등 수입이 감소
  - 의류 및 동 부속품의 감소폭이 9.1%로 가장 크며, 이어 통신기, 원유,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순으로 감소폭이 큼
- 주요 수입대상 지역·국가의 수입은 중국과 ASEAN, 호주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미국과 EU,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

< 2014년 10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단위: 억 엔, %) >

순위	국가	2014.9월			2014.10월			2014.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중국	18,240	8.3	35.1	18,164	9.6	-0.4	157,060	9.2
2	ASEAN	10,126	10.8	8.9	10,061	-1.6	-0.6	100,936	6.5
3	EU	6,988	4.2	10.8	6,997	4.9	0.1	67,864	8.0
4	미국	6,175	6.9	-3.1	6,538	11.0	5.9	62,343	10.9
5	호주	4,197	-1.1	0.6	4,076	-0.6	-2.9	42,168	1.9
8	한국	2,867	5.4	9.4	3,062	-7.0	6.8	29,150	1.7

자료 :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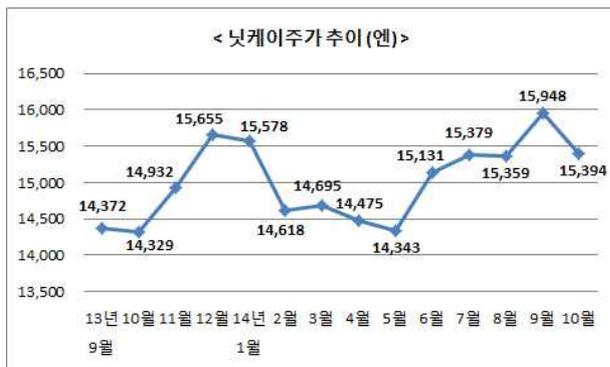
### 3. 엔저 가속, 고주가

####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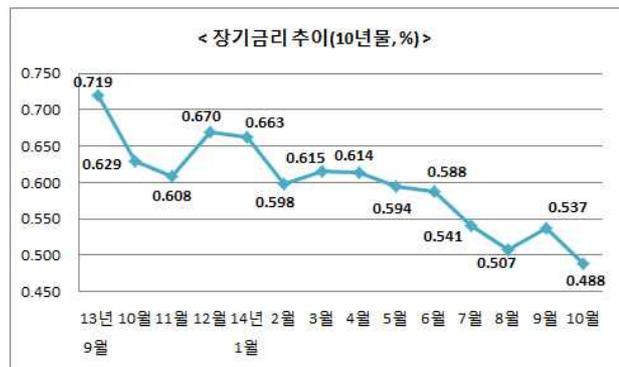
- ‘14.10월 평균 주가는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경향 등으로 전월보다 3.5% 하락한 15,394엔
- 11월 들어서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와 엔저영향 등으로 11월 21일 기준으로 17,358엔대까지 상승

#### □ (금 리)

- ‘14.10월 평균 10년물 장기국채금리는 미국의 장기금리 하락 등을 배경으로 전월보다 9.3% 하락한 0.488%
- 11월 들어서는 일본의 주가상승과 엔저의 영향 등으로 0.5%대까지 상승한 후, 11월 21일 기준으로는 0.455%로 다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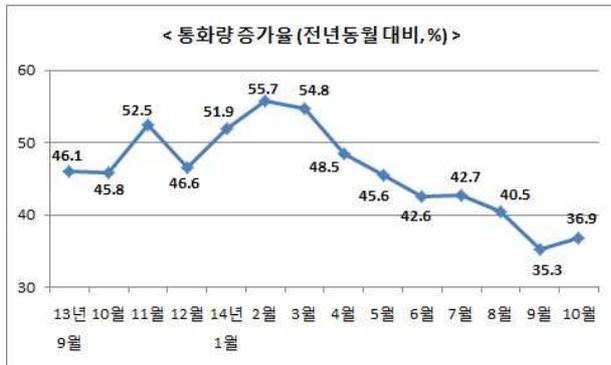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자료 : 일본상호증권

#### □ (통화량)

- ‘14.10월 머니리베이스(평잔)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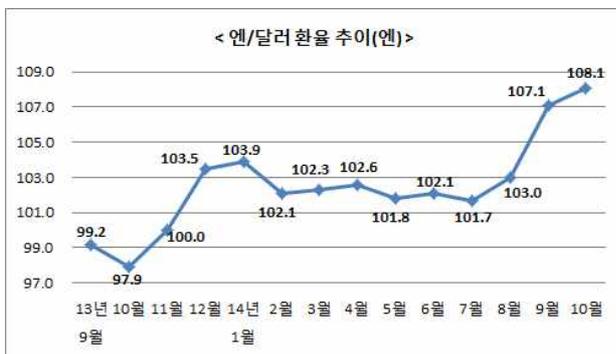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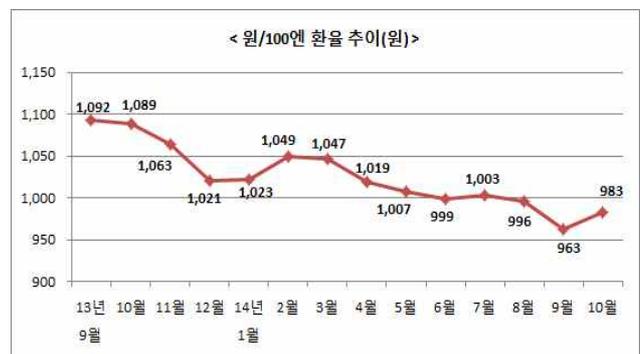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 □ (환 율)

- ‘14.10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미·일간 금융정책의 차이(일본의 금융완화 확대, 미국의 금융완화 중단) 등을 반영하여 9월보다 0.9% 상승한 108.1엔(엔저)
  - 11월 들어서는 일부 기관투자가들에 의한 주식투자비중의 상향조정 등으로 117엔대 까지 상승, 11월 21일 기준으로 118.09엔
- 2014년부터 102엔대를 유지하던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미일간 금융정책의 차이, 일본 소비세 인상 등으로 인한 일본 경기의 침체 및 무역적자 계속 등으로 엔저 기조가 유지될 전망
- ‘14.10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83원으로 9월의 962원엔 비해 2.2% 엔고·원저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 4.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반전

### □ (동향)

- '14.9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6,907억 엔으로 전월대비 8.1% 증가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

	2013	2014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금 액	131,946	6,096	7,356	6,757	7,828	6,392	6,907	
증가율	전기비	34.9	-17.4	20.7	-8.1	15.9	-18.3	8.1
	전년동기비	34.9	-59.4	-18.4	-21.4	-79.0	20.2	54.8

자료 : 일본 재무성

-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가 큰 폭의 증가를 보인데 이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도 52.5% 증가
  -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26.9% 증가
  -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12.7% 증가
- 반면, 유럽 지역과 북미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각각 52.1% 및 45.1% 감소
  -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40.5% 감소

< 2014년 9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2013년	2014.8월			2014.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대세계	131,946	6,392	-18.3	20.2	6,907	8.1	54.8
아시아	39,294	2,428	-13.4	25.2	3,702	52.5	100.0
중 국	8,855	513	11.8	0.0	651	26.9	119.2
한 국	3,209	267	-40.4	-31.0	301	12.7	126.3
북 미	45,698	2,136	26.0	15.6	1,172	-45.1	-5.9
미 국	42,933	1,835	18.4	5.4	1,092	-40.5	2.2
중남미	9,902	993	341.3	49.5	1,273	25.2	95.8
유 럽	31,567	789	-70.4	143.5	378	-52.1	147.1
대양주	5,895	-36	-	-	174	-	-70.1
중동	-92	26	-59.4	73.3	101	288.5	405.0
아프리카	504	55	-74.1	120.0	106	92.7	387.9

자료 : 일본 재무성

## □ (최근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 최근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은 3가지로 집약
  - 첫째, M&A형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 '13.4월~'14.3월 기간 중 521건으로 최고치 기록
    -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는 자원확보형 투자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 중단을 계기로 일본기업의 해외 자원확보형 투자 진출이 확대
  - 둘째,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이전이 수반되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
    - 엔저에도 해외로 생산거점 이전이 증가하는 이유는 내수시장의 한계와 생산단가 저하를 통한 경쟁력 확보, 현지시장 선점을 통한 시장 확대 등 때문임
  - 셋째, 일본기업들의 직접투자·생산거점이 소비지역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이 현지생산거점으로부터의 수출로 대체
    - 대미 수출 승용차의 경우, 생산거점이 일본으로부터 멕시코로 이점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대미수출이 멕시코 현지기업으로부터의 대미수출로 대체
    - 엔저가 되더라도 현지생산거점으로부터의 수출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출로 역대체되기 어려움

### Ⅲ. 일본의 주요 정책

#### 1. 일본의 추가 금융완화와 소비세 재인상 연기

▷ 일본은행이 10월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융완화를 결정한데, 이어 11월 18일에는 아베총리가 2015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재인상을 연기

##### □ 배경

- 일본은행은 2015년도까지 물가상승율을 2%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는데, 2014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소비세 인상 영향 제외)가 전년동월비 1.0%로 기대에 못 미치고 더욱이 5월 이후는 상승률이 둔화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장기간 디플레이션이 계속된 일본은 미국과 같이 예상물가 상승률이 2%정도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이번 정책으로 물가목표의 조기달성을 보다 확실히 할 것임을 강조
- 일본의 GDP성장율이 2014년 2분기의 -7.3%에 이어 3분기에도 -1.6%의 마이너스를 기록함에 따라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하강효과가 예상외로 장기화 조짐을 보임

##### □ 추가 금융완화

###### <주요 내용>

- 2013년 4월 도입한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확충, 금융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금공급량을 이제까지의 년 60조엔~70조 엔에서 80조 엔으로 늘림
  - 자금공급량은 내년 말에는 355조 엔으로 GDP의 70%이상까지 늘릴 전망
- 장기국채의 매입액도 연간 50조에서 80조 엔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매입 국채상환기간(평균잔존기간)을 7년 정도에서 7~10년 정도로 연장, 장기금리하락을 촉진함으로써 설비투자과 주택구입을 지원
- 주식과 연동된 주가지수연동형투자신탁(ETF)과 부동산투자신탁(REIT)의 구입도 이제까지의 3배로 늘림

## <영향과 전망>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투자와 소비를 자극, 경제 전체를 성장시키겠다면서 추가 완화책의 효과를 역설
- 일각에서는 대출금리가 가일층 하락, 금융기관간 금리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추가 금융완화의 영향을 관측
  - 최근 장기금리의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0.435%까지 하락, 2013년 4월 금융완화직후 일시적으로 기록한 0.315%를 제외하면 0.4%대의 장기금리는 과거 최저수준임
  - 메가뱅크의 주택론금리(10년물)은 1% 전반으로 과거 최저수준이나, 추가금융완화로 저금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 소비세 인상 이후 일본 주택시장의 침체로 수요환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차입금리 하락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음
- 주가지수연동향투자신탁(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등의 리스크자산의 구입액 확대도 주가와 부동산가격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자산을 보유하는 기업과 가계의 심리가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임
- 구로다 총재는 환율에 영향을 미칠 생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금공급 확대에 의한 가일층의 엔저 촉진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
  - 10월 29일 미국 FRB가 양적완화 종료를 결정한 상황에서 대규모 완화를 계속하기로 한 일본은행과의 방향성 차이도 선명해짐에 따라 외환시장에서는 엔저·달러고가 진행,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높이고 있음
- 그러나 추가완화책이 어느 정도나 경기와 물가를 끌어올리지는 예측하기 어려움
  - 이제까지의 물가상승은 엔저에 의해 수입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크고 현재는 원유가 하락으로 물가상승율이 둔화

- 금리하락으로 장래에 대한 불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가계와 기업들이 그렇게 쉽게 소비와 투자를 늘리지 못할 것임
-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금융완화로 개인소비와 기업투자가 늘어나 그것이 물가에 반영되어 임금 등도 상승하는 선순환임
- 그러나 그동안 임금상승 등이 늦어지고 있는 마당에, 가일층의 엔저는 기업과 가계에는 코스트 상승이라고 하는 부작용도 따름
-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2% 목표달성에 대한 장벽이 높다는 목소리도 있음
- 더욱이 일본은행의 국채구입이 일본정부의 적자보전책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방안 재정 우려에 따른 국채가격의 하락 리스크도 있음

#### □ 소비세 재인상 연기

- 아베 총리가 11월 18일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재인상을 2016년 4월로 연기
  - 이에 대한 신임을 묻기 위해 11월 21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12월 14일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함
- 소비세를 재인상하는 경우 그렇지 않아도 1차 소비세 인상의 경기하강 효과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마당에, 소비세를 재인상하는 경우 소비가 더욱 감소하고 경기가 악화되어 디플레이션 탈출도 위험하게 된다는 것이 소비세 재인상 연기의 이유임
- 아베 총리는 조만간 경기부양책과 함께,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내려주고 대신 법인세부담 절감분을 임금인상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디플레이션 심리 불식에 주력하겠다고 함

#### □ 시사점

- 일본은행이 2013년 4월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추가완화에 들어갔는데, 이는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기부양이 주춤함에 따라 완화책을 반복함으로써 시장의 장래기대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음
- 리스크자산의 구입확대로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도 있음

- 이번 추가 금융완화를 둘러싸고 일본은행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림
  - 정책위원 9명중 찬성이 5명, 반대가 4명으로 근소한 차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임
  - 일부 위원들은 추가완화가 경기나 물가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영향이 확실치 않다고 하는 등 신중한 의견도 적지 않았음
- 따라서 일본은행은 추가 이차원의 금융완화를 단행하기는 했으나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하여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 소비세 재인상 연기와 관련해서는, 당초 아베노믹스의 목적은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를 시공간을 버는 동안에 성장전략을 추진하여 성장력을 키우는 데 있음
- 그러나 증세여부를 판단할 때마다 경기 동향 등에 좌우되고 혼란을 거듭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야 말로 일본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에 맞설 성장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할 것임
- 한편, 이번 일본의 추가 금융완화와 소비세 재인상 연기는 우리 경제에 플러스영향과 마이너스 영향이 모두 예상됨
  - 마이너스영향은 추가 금융완화에 따른 엔저의 가속화가 대일수출 및 일본과의 대외수출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플러스영향은 추가 금융완화와 소비세 재인상과 함께 경기부양책과 성장정책 강화를 통하여 일본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경우 대일 수출과 한일산업협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음

##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 1. 10월 대일 수입감소로 대일 무역적자 축소

#### □ (총 합)

- ‘14.10월 대일 무역적자는 1,704백만 달러로, 9월에 비해 257백만 달러 축소
  - 대일 수출은 2,920백만 달러, 대일 수입은 4,624백만 달러

< 2014년 10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

	2014.9월			2014.10월			2014.1-10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수출	2,735	-6.2	7.8	<b>2,920</b>	-2.2	<b>6.8</b>	27,339	-4.5
대일수입	4,696	-4.2	11.2	<b>4,624</b>	-9.2	<b>-1.5</b>	44,963	-10.9
무역수지	-1,961	-24	276	<b>-1,704</b>	-404	<b>-257</b>	-17,624	-7,743

주) 수출, 수입의 증감은 %, 무역수지의 증감은 백만달러

자료 : 한국무역통계

#### □ (대일 수출)

- ‘14.10월의 대일 수출은 9월에 비하여 6.8% 증가
  - 이는 동 기간 중 한국의 총수출증가율 8.5%에 비하면 저조한 편이나 일본의 수입 증가율 1.4%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엔저하에서도 일본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음을 시사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4. 10월	-2.2	<b>6.8</b>	2.3	<b>8.5</b>	2.7	<b>1.4</b>
2014.1-10월	-4.5	-	2.8	-	6.9	-

- ‘14.10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의 변화를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 광물성연료, 정밀화학제품, 금속광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대일 수출이 증가
  - 산업용전자제품이 57.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수송기계(33.7%)와 농산물(20.5%)이 2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14년 10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4.9월			2014.10월			2014.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계	2,735	-6.2	7.8	<b>2,920</b>	-2.2	<b>6.8</b>	27,339	-4.5
1	광물성연료	646	-24.9	9.9	<b>570</b>	8.9	<b>-11.8</b>	5,681	-17.9
2	철강제품	322	11.6	2.5	<b>335</b>	-6.3	<b>4.0</b>	3,422	15.6
3	산업용전자제품	198	1.1	20.7	<b>312</b>	-23.3	<b>57.6</b>	2,322	-14.2
4	전자부품	188	-29.1	3.9	<b>197</b>	-20.2	<b>4.8</b>	2,001	-15.8
5	석유화학제품	132	12.8	-3.0	<b>152</b>	19.4	<b>15.2</b>	1,400	-8.9
6	수송기계	98	6.2	6.5	<b>131</b>	28.9	<b>33.7</b>	1,082	12.7
7	정밀화학제품	128	15.7	15.3	<b>126</b>	-1.8	<b>-1.6</b>	1,262	4.2
8	금속광물	113	-13.1	16.5	<b>102</b>	-19.0	<b>-9.7</b>	929	-16.1
9	기계요소공구·금형	87	12.3	0	<b>100</b>	19.3	<b>14.9</b>	952	18.0
10	농산물	83	2.9	-5.7	<b>100</b>	3.7	<b>20.5</b>	917	5.8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4.10월의 대일 수입은 9월에 비하여 1.5% 감소

- 대일 수출은 증가한 반면, 대일 수입이 축소된 것이 대일 무역적자 축소요인으로 작용

- 동 기간 중 총수입감소율은 전월비 0.2%로 대일 수입감소율을 하회

○ ‘14.10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의 변화를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 철강제품, 석유화학 제품, 플라스틱제품, 산업기계 등은 감소한 반면, 나머지 품목은 증가

- 대일 수입감소 폭 중 석유화학제품의 감소폭이 12.4%로 가장 크며, 이어 산업기계, 철강제품, 플라스틱 순

- 대일 수입증가 품목에서는 산업용전자제품의 증가폭이 8.3%로 가장 크며, 이어 정밀기계, 기초산업기계, 수송기계, 정밀화학제품, 전자부품 순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4. 10월	-9.2	-1.5	-3.0	-0.2
2014. 1-10월	-10.9	-	2.9	-

< 2014년 10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단위: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4.9월			2014.10월			2014.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계	4,696	-4.2	11.2	<b>4,624</b>	-9.2	<b>-1.5</b>	44,963	-10.9
1	철강제품	709	6.9	6.1	<b>688</b>	-0.7	<b>-3.0</b>	7,058	-7.6
2	전자부품	618	-8.9	14.0	<b>624</b>	-11.3	<b>1.0</b>	5,242	-13.1
3	석유화학제품	605	17.6	18.2	<b>530</b>	10.9	<b>-12.4</b>	5,116	-8.9
4	정밀화학제품	354	-0.3	8.6	<b>360</b>	-3.8	<b>1.7</b>	3,606	-3.4
5	기초산업기계	295	-36.3	5.4	<b>314</b>	-44.9	<b>6.4</b>	2,940	-28.1
6	플라스틱제품	241	-9.9	5.2	<b>239</b>	-13.5	<b>-0.8</b>	2,410	-13.4
7	산업용전자제품	218	-11.2	10.7	<b>236</b>	-13.0	<b>8.3</b>	2,385	2.3
8	수송기계	217	22.2	7.4	<b>222</b>	1.7	<b>2.3</b>	2,089	6.3
9	산업기계	199	6.3	8.2	<b>191</b>	0.9	<b>-4.0</b>	1,998	-1.8
10	정밀기계	173	-18.7	9.5	<b>187</b>	-23.5	<b>8.1</b>	1,989	-18.8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 3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큰 폭 증가

□ (동향) : '14.3분기 일본의 대한투자, 증가로 반전

- '14.3분기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는 489백만 달러로 전기 대비 21.3% 증가
  -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증가율이 14.9%의 감소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
  - 건수로는 10% 감소
- 한편, 2014년 1~3분기 일본의 대한투자 누계는 1,638백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
  - 이 역시 동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증가율이 37.9%의 증가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
  - 건수로도 24.1% 감소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 건, 백만 달러, %) >

	2013년		2014.1분기		2014.2분기		2014.3분기		2014.1-3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447 (-17.7)	2,690 (-40.8)	99 (-11.6)	746 (2.3)	80 (-19.2)	403 (-46.0)	72 (-10.0)	489 (21.3)	251 (-24.1)	1,638 (-16.6)
전체 외국인투자	2,607 (-9.1)	14,548 (-10.7)	571 (-15.3)	5,062 (33.1)	583 (2.1)	5,272 (4.1)	563 (-3.4)	4,484 (-14.9)	1,717 (-11.2)	14,818 (37.9)

주) ( )내는 전기 대비 증가율 2014.1-3분기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산업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최근 한·일 기업간 산업협력 사례)

- 일본의 친환경재생산업체(RPM)인 (주)에코마트 산업이 광양항 배후부지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물류창고 및 기반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2014.9.25.)
- NTT도코모가 한국기업 등과 공동으로 번역소프트 개발키로(2014.9.29.)
  - 공동출자회사인 미라이번역(자본금 9억 9,000만원)을 10월에 설립, 도코모가 51%, 한국의 번역소프트개발회사인 시스트란인터내셔널이 30%, 음성인식시스템개발 휴트랙이 10% 출자
- 일본의 대표적인 회계 소프트웨어 기업 MJS가 국내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웹케시에 증자 및 주식 매입 방식으로 25억원을 투자(2014.10.24.)

□ (시사점)

- 한일 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추가 금융완화로 엔저기조가 유지될 전망
- 한일 경제교류를 둘러싼 이 같은 환경변화는 우리의 수출은 물론, 일본의 대한투자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점에서, 다각적인 대응과 함께 보다 강도 높고 차별화된 대일 투자유치노력이 요구됨

### 3. 2개월 연속 방한 일본인 수 감소, 방일 한국인 수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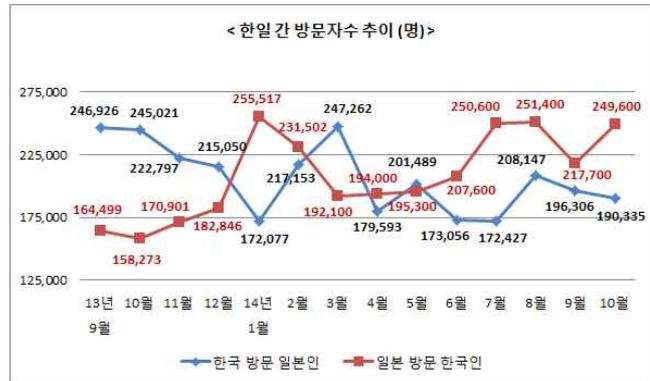
□ (일본인 방한) ‘14.9월에 이어 10월에도 감소

○ ‘14.10월 일본인 입국자수는 190,335명으로 9월보다 3% 감소

□ (한국인 방일) ‘14.10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수는 크게 증가

○ ‘14.10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249,600명으로 9월보다 14.7% 증가

-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방일 프로모션, 엔저 등이 한국인의 방일객 증가에 기여



출처 :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JNTO)

## V. 참고 자료

###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014.10월~11월)

#### □ 국내기관

- 『일본고령자 가구의 자산보유 상황 평가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4년 11월14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11125&boardBean.menuid=2229&boardBean.mum=3&menuNav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일본 서비스 산업의 동남아 해외진출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14년 11월13일  
<http://iit.kita.net/>
- 『일본의 ODA자금 배정방식과 산업통상정책 전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4년 11월11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2981>
- 『최근 일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 2014년 11월10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11001&boardBean.menuid=2229&boardBean.mum=4&menuNav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일본의 비관세장벽 실상과 극복방안』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4년 11월5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2968>
- 『엔저 2년 일본의 수출입 동향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14년 10월30일  
<http://iit.kita.net/>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한국의 대일수출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연구원, 2014년 10월28일  
<http://iit.kita.net/>
- 『한일 교역규모 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 KOTRA, 2014년 10월27일  
[http://www.globalwindow.org/gw/publishdata/GWPDRE020M1.html?SCH\\_TYPE=SCH\\_SI&SCH\\_VALUE=&REL\\_AREA\\_CD=&SCHLSTART\\_DT=&SCHLEND\\_DT=&RowCountPerPage=10&BES\\_ID=30&MENU\\_CD](http://www.globalwindow.org/gw/publishdata/GWPDRE020M1.html?SCH_TYPE=SCH_SI&SCH_VALUE=&REL_AREA_CD=&SCHLSTART_DT=&SCHLEND_DT=&RowCountPerPage=10&BES_ID=30&MENU_CD)
- 『꺼져가는 일본 디스플레이 JOLED가 불씨 살릴까』 LG경제연구원, 2014년 10월20일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ind/LGBI1324-26\\_20141021133300.pdf](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ind/LGBI1324-26_20141021133300.pdf)

## □ 일본기관

- 『소비세 증세 연기 후 일본경제전망 : 아베노믹스의 빛과 그림자 검증』 다이와종합연구소, 2014년 11월22일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4/094\\_honbun.pdf](http://www.keidanren.or.jp/policy/2014/094_honbun.pdf)
- 『세계와 일본의 FTA 일람』 JETRO, 2014년 11월22일  
[http://www.jetro.go.jp/jfile/report/07001093/07001093\\_2014\\_11.pdf](http://www.jetro.go.jp/jfile/report/07001093/07001093_2014_11.pdf)
- 『동아시아에 있어서 서플라이체인의 국제화』 경제산업연구소, 2014년 11월20일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dp/14e066.pdf>
- 『일본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개발력 강화와 지역활성화의 양립』 일본경제단체연회, 2014년 11월19일  
[http://www.dir.co.jp/research/report/japan/outlook/quartery/20141121\\_009170.pdf](http://www.dir.co.jp/research/report/japan/outlook/quartery/20141121_009170.pdf)
- 『국가 브랜드전략 구축을 위한 제언』 일본경제단체연합회, 2014년 11월19일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4/093\\_honbun.pdf](http://www.keidanren.or.jp/policy/2014/093_honbun.pdf)
- 『최근 TPP를 둘러싼 주요 움직임』 JC종합연구소, 2014년 11월19일  
[http://www.jc-so-ken.or.jp/agriculture/pdf/tpp\\_141118.pdf](http://www.jc-so-ken.or.jp/agriculture/pdf/tpp_141118.pdf)
- 『전략적 인프라 시스템의 해외전개를 위하여; 주요 국별 관심분야 과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2014년 11월19일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4/097.html>
- 『서비타이제이션의 연구리뷰와 향후 마케팅 과제』 코베대학경제경영연구소, 2014년 11월19일  
<http://www.rieb.kobe-u.ac.jp/academic/ra/dp/Japanese/dp2014-J12.pdf>

## 2. 일본의 주요 경제 일정 (11월)

일자	주요 행사 내용
4	• 경제재정동향 점검회의(총리실)
5	• APEC 고위급 회의(베이징, 6일까지)
6	• LNG산소회의(경산성)
7	• APEC 각료회의(베이징, 8일까지)
	• 10월 고용통계
8	• TPP교섭 각료회의
10	• APEC 정상회의(베이징, 11일까지)
	• TPP 정상회의(베이징)
11	• 9월 국제수지(재무성)
12	• ASEAN 정상회담(미얀마)
13	• 동아시아정상회담(레피도)
	• 경제재정동향 점검회의(총리실, 소비세 10%인상 여부)
	• 9월 기계수주액(내각부)
17	• 7~9월 GDP속보치(내각부)
18	• 경제재정동향 점검 최종회의(총리실, 소비세 10%인상 여부)
19	• 방일 외국인 관광객 통계(일본정부관광국)
20	• 10월 무역통계(재무성)
24	• 제6회 한중일 FTA 교섭회의(도쿄, 28일까지)
25	• 11월 월례경제보고(내각부)
25~28	• 한·큐슈경제교류회의,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가고시마)
30~12.1	• 한일 재계회의(서울)